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구세주가 밝히는 과학적 영생 이론 산소에는 생명자와 악령자가 같이 들어 있다

생명자라는 물질이 사람의 핏속을 통해서 사람의 몸의 세포에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이 나온다. 그 생명자라는 물질은 바로 산소 속에 있다. 산소 속에는 생명자뿐만 아니라 악령자라는 물질이 있다. 악령자는 산화 물질이다. 예를 들면 산소를 쫓겨가다가 내뿜으면 쇠에 녹이 슬어 썩어서 문들어진다. 썩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악령자이다.



산소를 마셔야 죽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산소 속에는 죽음의 물질도 있다

산소 속에 생명자와 악령자가 있다

그런데 산소 속에는 생명자가 있기 때문에 악령자가 있는 것이다. 악령자가 바로 무엇이나 하면 마귀의 신이다. 사망의 신, 죽이는 신이다. 생명의 신이 되는 생명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신이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악령자가 감싸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호흡할 때에 공기가 들어온다.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폐로 들어갔을 때 산소라는 물질 중에 있는 생명자라는 물질을 적혈구가 잡아가지고 운반해서 온 몸에 있는 세포에 전달한다. 그러면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얻어 가지고 사람의 몸이 움직이고 힘을 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자의 능력이다. 그래서 생명자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를 음식 속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생명의 원동력은 산소 속에 있는 생명자이다. 이걸 첨단 과학자들도 모른다. 오직 구세주만 알고 있

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는 생명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악령자도 들어온다. 그 악령자는 생명력이 되는 생명자를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람이 기뻐하거나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그 생명자의 물질이 악령자에게 먹히지 않는다.

악령자가 피를 썩히는 주범

“죽느냐 사느냐,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마음에 따라서 영생도 되고 죽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깡 마음의 법(자유율법)을 지켜야 한다. 반대 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의 주체 영인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악령자다. 악령자가 몸에 피를 썩혀서 죽게 하는 것이다. 이 또한 과학자나 의사들은 모르고 오직 구세주만 아는 것이다. 구세주는 세상말로 만물박사다. 모

르는 것이 없다. 사람의 생명을 영원무궁토록 연장시키는 방법도 구세주는 알고 있다. 사람이 웃으면 핏속에서 생명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생명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강해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악령자를 없애버리게 된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마음이 기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연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에 되는 것이다. 생명자가 많아져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생명자가 작아지고 악령자가 많아지면 사람은 꼭 죽는다.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욕심을 많이 부린다든지 하면 악령자가 점점 많아져서 생명자가 힘을 못 당해서 죽고야 마는 것이다.

반대생활을 해야 영생한다

그래서 이 길은 마음 법을 지켜야

는 길이라고 했던 것이다. 반대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이다. 반대생활을 해야 그래야 바로 마귀의 영이 죽는 것이다. 반대생활을 안 하면 마귀의 영이 점점 강해져서 결국 사람은 죽고야 마는 것이다. 사람이 늙지 않는 방법도 만날 수는 것이다. 통과하게 웃으면 피가 맑아진다. 그러면서 엔도르핀이 발생되면서 T세포가 조성된다. 그러면 병균이 몸 안의 핏속에 잠입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 바이러스 균 자체가 악령자에서 나오는 균이다.

구세주는 바로 영생하는 방법을 의학적으로도 알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알고 있고, 영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죽지 않는 방법, 사람이 병 안 걸리는 방법, 마음에 달렸다. 낙심을 하거나, 좌절할 마음을 갖는다는지, 희망이 없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에 걸려서 죽는다. 사람이 실망을 자주하고, 낙심을 자주하게 되면 피가 푹푹 썩는다. 그래서 암도 걸리고, 그밖에 다른 죽을병에 걸려서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반대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은 언제든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반대생활을 하려면 쥐야 된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진심으로 좋아해야 한다. 먹고 싶으면 안 먹어야 한다. 화가 나면 너털웃음으로 웃어야 한다. 그렇게 사는 버릇을 가지면 죽지 않는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52>
“천국도 지옥도 이 땅위에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마귀의 생각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형상대로 이 세상 만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화하게 되어 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인고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환원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신고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마귀는 모조리 전멸되는 것이다.

마귀가 전멸된 다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 없다. 눈물과 탄식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세계이다. 천국도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고 지옥도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99세 살았다는 개운조사(開雲祖師)

우리 제단에 선도(仙道)에 관한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다. 이 책은 오영규 스님이 우리 제단에 소개한 것으로 조선시대 유명한 선인(仙人)인 개운조사(1790-1988)의 제자 양성(陽星)선사가 심원사 천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양성선사는 그곳에서 개운조사가 숨겨놓았다 『수능엄경』을 찾을 때 『선불가진수어록』도 같이 발견했다고 한다. 『선불가진수어록』은 선도(仙道)에 관한 여러 책을 모은 것으로 우리나라 선도 역사에 매우 귀중한 문헌이다.



최근 발행된 임재우 교수의 『한국의 불공화상(佛供和尚)』이다. 너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에 극진하고 너를 시험하였노라. 책세 권을 줄테니 공부하되 지금을 알릴 때가 아니요 150년 이후에 세상에 전해야 할 책이 아니라.” 불공화상이라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중국에서 삼장법사(三藏法師)로 칭하던 유명한 고승(高僧)으로, 태생은 북인도(北印度) 사람이요, 불경을 많이 번역했던 분이다. 불공화상이 천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개운스님 앞에 경(經)을 전하더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운스님이 불공화상과 작별하고 나서, 증표로 받은 세 권의 책을 가지고 20년간을 수도하여 드디어 3과(三課)를 증득하니 그 몸에서 빛이 나는고로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었다. 스님은 그곳을 떠나 지리산 묘향대로 갔다고 수기를 일심으로 기원하였다. 약 1년이 지났는데 어디선가 남루한 옷을 입은 광승(狂僧)이 나타나서 같이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냄새가 나서 누구든지 곁에 가까이 싫을 정도였다. 그러나 싫다고 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지극지성(至極至誠)으로 모셨다. 아무리 극진하게 대접을

해도 특하면 투정을 부리고 달려들어 때리기도 하니 같이 있는 사람이 참고 인내하기가 어려웠지만 개운은 끝까지 못마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 스님이 개운 앞에 나타났는데 별안간 금빛으로 화하여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금빛으로 변한 스님이 물기를, “내가 네 스승이 될 만하지 않느냐?” 하니 개운이 그 자리에서 백배사례(百拜謝禮)하자 “너는 이제 도(道)를 닦을 그릇이 되었다. 때려도 싫어하지 아니하고 칭찬해도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을 항복받아 도를 전하 받아도 되느니라. 나는 중국의 불공화상(佛供和尚)이다. 너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에 극진하고 너를 시험하였노라. 책세 권을 줄테니 공부하되 지금을 알릴 때가 아니요 150년 이후에 세상에 전해야 할 책이 아니라.” 불공화상이라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중국에서 삼장법사(三藏法師)로 칭하던 유명한 고승(高僧)으로, 태생은 북인도(北印度) 사람이요, 불경을 많이 번역했던 분이다. 불공화상이 천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개운스님 앞에 경(經)을 전하더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운스님이 불공화상과 작별하고 나서, 증표로 받은 세 권의 책을 가지고 20년간을 수도하여 드디어 3과(三課)를 증득하니 그 몸에서 빛이 나는고로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었다. 스님은 그곳을 떠나 지리산 묘향대로 갔다고 수기를 일심으로 기원하였다. 약 1년이 지났는데 어디선가 남루한 옷을 입은 광승(狂僧)이 나타나서 같이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냄새가 나서 누구든지 곁에 가까이 싫을 정도였다. 그러나 싫다고 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지극지성(至極至誠)으로 모셨다. 아무리 극진하게 대접을

광승(狂僧)을 지극정성으로 모셔

- 지금부터 200년 전 경상북도 상주(尙州) 땅에 개운(開雲)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그 당시에 스님도 많았고, 스승도 많았지만 진짜 스승다운 스승을 만날 수가 없어 천일(千日)을 기도 드리는 중에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일심으로 기원하였다. 약 1년이 지났는데 어디선가 남루한 옷을 입은 광승(狂僧)이 나타나서 같이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냄새가 나서 누구든지 곁에 가까이 싫을 정도였다. 그러나 싫다고 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지극지성(至極至誠)으로 모셨다. 아무리 극진하게 대접을

고 하는 분들이 말하는 나라는 말을 벗어버리는 법은 그 설명을 각각각색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살아 있는 육신이 하나님의 존재로 변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논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승리제단에서는 나라는 말을 벗어버리고 살아서 영생하는 자유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극락의 생활, 전지전능한 힘을 보유하면서 소망하는 삶을 향유하고 싶다면 승리제단에 오셔서 자유율법, 나라는 말을 벗어버리는 법을 배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시면서 행복과 영원한 삶을 누리보십시오.*

윤금옥 승사

우주 개벽 코앞에 와 있지 않을까

승리제단의 성도들은 구세주 조희성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탄허 스님의 지축정립과 서해바다가 융기하여 한국 영토가 넓어진다는 한국의 지형변화에 관한 예언, 김일부 선생의 정역 즉 지구의 지축이 바로 선다는 설을 보면 지구 개벽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탄허 스님의 한국의 통일 시기에 대한 예언은 빛나갔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회담이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 등을 보더라도 통일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구촌의 지진

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섬과 섬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극이동이 극심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유럽의 예언가이며 대표수행자로 선출된 ‘사만 커샤’는 동물들과 대화 가능하며 에너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성수행자입니다. 그녀는 지구에 극이동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 살아 남으려면 사랑의 마음과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리제단의 구세주 조희성님은 우주에 어느 입계점에 달하면 태양은 힘

을 잃고 어두워지고 구세주의 몸에서 태양의 빛보다 몇 천배 강렬한 빛이 발하여 인류가 그 빛으로 살게 되며, 사철이 춥고 덥지 않은 온화한 봄 날씨의 지구 환경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개벽이 예텐동산으로 재건설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류가 소망하던 진정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 입계점은 지구상의 인류가 보다 양심적으로 살고, 승리제단의 성도들이 자유율법을 잘 지키어 ‘나라는 탈’을 벗어버릴 때 그 시간은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소위 깨달음을 얻었다

고 하는 분들이 말하는 나라는 말을 벗어버리는 법은 그 설명을 각각각색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살아 있는 육신이 하나님의 존재로 변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논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승리제단에서는 나라는 말을 벗어버리고 살아서 영생하는 자유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극락의 생활, 전지전능한 힘을 보유하면서 소망하는 삶을 향유하고 싶다면 승리제단에 오셔서 자유율법, 나라는 말을 벗어버리는 법을 배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시면서 행복과 영원한 삶을 누리보십시오.*

윤금옥 승사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우측 광선)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우측 광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

3지역 7개월 만에 1등

개인 1등 공용배 승사



3지역 안명숙 승사가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은 2월 5일 화요일 구역장 회의에서 1월 성적 우수자에게 상금을 주는 시상식이 있었다.

-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2등: 6지역(지역장: 안병천, 지회장: 석선자)
- 3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구역 1등: 30구역(구역장: 공용배)
- 2등: 21구역(구역장: 안명숙)
- 3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 *개인 1등: 공용배 승사
- 2등: 배경엽 권사
- 3등: 이영애 권사*